

보통 · 생각해서 풀기 (9~16번)

9 보통 고마운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은 무엇일까요?

① 엄마, 고마워요.

② 엄마, 제가 아플 때 밤새 곁에서 돌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.

③ 엄마, 고마운 일이 많아요.

④ 엄마, 그냥 고마워요.

10 보통 선생님께 쓴 편지에서 잘못 쓴 부분은 무엇일까요?

① 김수진 선생님께

② 선생님, 안녕하세요?

③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.

④ 선생님, 건강해라.

11 보통 다음 편지에서 빠진 부분을 빈칸에 쓰세요.

“민서에게 / 민서야, 안녕? / 어제 지우개를 빌려줘서 고마워. /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. /
□□□□□ / 친구 도현이가”

12 보통 말다툼을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.

답: _____

13 보통 다리를 다쳐 입원한 친구에게 쓸 편지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?

① 어서 나아서 같이 놀자. 네가 없으니 쉬는 시간이 심심해.

② 나는 어제 놀이공원에 다녀왔어. 정말 재미있었어.

③ 조심하지 그랬어.

④ 너 없이도 우리 반은 재미있게 지내.

14 보통 편지를 받을 사람이 웃어른이든 친구든 똑같은 말투로 쓰면 돼요.

○ X

15 보통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의 ‘받을 사람’ 부분을 써 보세요.

답: _____

16 보통 편지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하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?

① 편지지 색깔

② 봉투의 크기

③ 글씨의 크기

④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지

도전 · 한 걸음 더 (17~20번)

- 17 도전 다음 편지의 '전하고 싶은 말'을 마음이 더 잘 드러나게 고쳐 쓰세요.
“아빠, 자전거 고마워요.”

- 18 도전 편지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쓰면 좋은 까닭을 쓰세요.

- 19 도전 다음 편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?

“지민아, 안녕? 나 서준이야. 이번 받아쓰기에서 백 점 받은 거 축하해! 매일 연습하더니 정말 멋지다. 다음에 나한테도 비법 알려 줘. 그럼 안녕. / 20〇〇년 6월 3일 / 서준이가”

- ①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예요. ② ‘받을 사람’ 부분이 빠져 있어요.
③ 웃어른께 쓴 편지예요. ④ ‘쓴 날짜’가 빠져 있어요.

- 20 도전 고마운 사람 한 명을 정해, 첫인사와 전하고 싶은 말을 넣어 짧은 편지글을 쓰세요.

1. ③ 편지는 받을 사람을 부르는 말로 시작해요.
2. **끝인사** 전하고 싶은 말을 쓴 뒤 끝인사로 마무리해요.
3. 0 웃어른께는 ‘○○ 올림’ 또는 ‘○○ 드림’이라고 써요.
4. **1-다, 2-가, 3-라, 4-나** 상황에 따라 고마움, 미안함, 축하, 위로하는 마음을 전해요.
5. ① 첫인사는 편지의 처음에 받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예요.
6. X 다 쓴 뒤 다시 읽으며 빠진 형식이나 틀린 맞춤법이 없는지 살펴야 해요.
7. **하늘이가** 친구에게는 ‘○○가’처럼 써요. ‘친구 하늘이가’도 정답이에요.
8. ③ 끝인사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건네는 인사예요.
9. ②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쓰면 마음이 더 잘 전해져요.
10. ④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써서 ‘선생님, 건강하세요.’라고 해야 해요.
11. **쓴 날짜** 끝인사와 쓴 사람 사이에는 쓴 날짜가 들어가야 해요. 예: 20○○년 4월 10일
12. **지난번에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해. 앞으로는 네 말을 끝까지 들을게.**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쓰면 정답이에요.
13. ① 다친 친구에게는 빨리 낫기를 바라는 위로하는 마음을 전해요.
14. X 받는 사람에 맞게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, 친구에게는 다정한 말을 써요.
15. **사랑하는 할머니께** 웃어른께는 ‘에게’ 대신 ‘께’를 써요. ‘할머니께’, ‘보고 싶은 할머니께’ 등도 정답이에요.
16. ④ 받을 사람과 전할 마음을 먼저 정해야 쓸 내용이 또렷해져요.
17. **아빠, 주말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끝까지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. 처음에는 넘어질까 봐 무서웠는데 아빠가 뒤에서 잡아 주셔서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어요.** 있었던 일과 그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쓰고 높임 표현을 바르게 썼으면 정답이에요.
18. **받는 사람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더 진심으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.** 구체적으로 쓰면 마음이 더 잘 전해진다는 내용이면 정답이에요.
19. ② ‘지민에게’ 같은 받을 사람 부분이 빠져 있어요. 축하하는 마음을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예요.
20. **보건 선생님께 /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저 3학년 1반 하윤이에요. 운동장에서 무릎을 다쳤을 때 약을 발라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.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. 선생님, 늘 건강하세요. / 하윤 올림** 받을 사람, 첫인사, 구체적인 일과 마음, 알맞은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에요.